



정읍시, 노인·장애인급식소서 균형 있는 식생활 교육

전북과학대학교(총장 김상희)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노인·장애인급식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균형 있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관내 15개 노인·장애인급식소 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구성자전거를 활용한 영양 교육 △식품군을 고루 활용한 감자 샐러드 모닝빵 샌드위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소방서, 함께하는 청렴ON 릴레이 캠페인 전개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19일 본서 차고 앞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하는 청렴ON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달 9일까지 소방본부와 15개 소방서를 비롯해 안전센터·구조대·지역대 등 전 소방 조직이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소방서는 청렴 스티커를 배부해 개인 업무노트와 사무 공간에 부착하고, 소방서장의 청렴 구호 선전에 맞춰 전 직원이 함께 복창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또한 캠페인에 참석한 직원들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 백산면 복지기동대, 어르신가정 전등 교체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고은용)가 지난 19일 에너지취약계층인 독거노인 16세대를 방문해 노후화된 전등을 고효율LED전등으로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원들은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현관과 화장실의 낡은 전등을 LED 전등으로 신속하게 교체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으며 고장 난 스위치와 오래된 전선등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속 상생 협력 다짐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직급 처우·근로환경 개선 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5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본관 3층 가운데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윤현조 기획조정실장, 김중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보와 타협 속에서 결실을 이뤄낸 최종 합의안은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 가족친화활동비 인상, 업무지원직 및 하위직 직급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의는 의정갈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파업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협상을 통해 윈윈한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난 8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2년 연속 임단협 합의를 이어온 매우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협약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재적 조합원(1884명, 휴직자 제외) 1638명(86.94%)이 투표에 참여해 1297명(79.18%)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5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내 전 소방서 참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진행

을지연습·민방위 훈련 연계해 전국 동시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0일 오후 2시 2025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 소방서는 주요 교통 혼잡 구간을 선정해 소방차 실제 주행 훈련을 실시하며, 교차로·편도도로 등 상황별 길터주기 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언론인 등이 참여한 소방차 동승체험을 통해 현장의 긴박함을 직접 전하며 정책 공감대를 높였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거리로 나서 피켓 홍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8월 7일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당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쪽 차로를 비켜주며 출동로를 확보해



소방차가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로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이 이러한 실제 경험처럼 도민의 작은 양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백제약국, 아동 영양제 지원 맞춘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남원 백제약국(대표 약사 유은상)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난 19일 영양제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제 구입 비용 15%를 남원 백제약국이 후원하고 △드림스타트가 선정한 유아 및 저체중 아동에게 4개월분의 맞춤형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지급,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은상 대표 약사는 “성장기 아이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옥 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는 20일, 평생학습관 3층 다목적 강당에서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총 5회 과정 중 세 번째로,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74개소에서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사회사업 역사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짚어주며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교감을 제시하고, 현장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전달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교월동 복지기동대, 안전 손잡이 설치 봉사활동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20일 복지기동대(대장 최창인)가 관내 독거노인 3세대를 방문해 안전 손잡이 설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보행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가정 내 동선을 고려해 낙상 위험이 높은 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혹서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추가적인 생활 불편 사항이 있는지 세심히 살폈다.

최창인 대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집 안에서 넘어질 경우 대응이 어려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